상품 개발

9

제9장 상품개발

서울올림픽대회는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향상과 함께 한국 상품에 대한 홍보와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는 한편,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였다.

정부는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유치를 계기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양대회를 계기로 대회 관련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망상품을 선정하고, 품목별로 장·단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생산을 전문화시키고 공급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개발된 상품은 수출상품화하여 장기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회에 소요되는 경기용구와 전자장비는 국내개발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개발을 추진하여 서울올림픽대회시 국산품 사용률을 높였다. 늘어나는 외국관광객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전통공예품 및 올림픽기념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민간 차원의 상호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양채류의 국내재배, 가공식품인 국산차와 홍삼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으로서 국제화가 가능한 품목을 개발 보급하고, 올림픽에 대비한 요리식품의 개발 보급에도 주력하였다.

1. 경기용구 국제수준화

1.1. 사업개요

□ 사업 선정

서울올림픽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대회 개최는 대회 관련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된다. 특히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국내 스포츠용품산업은 올림픽을 통해 국산운동용구의 사용을 확대하고, 경기용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고유상표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상품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 대회 유치 당시의 국내 스포츠용품 산업 실태

한국의 운동용구업체는 200여개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거나 가내수공업의 형태로서 자본금 1억원 미만이 50%, 종사원 20명 이하인 업체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 곤란하여 공장규모가 협소하고, 생산시설도 대부분 재래식이거나 노후하여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품면에서도 제품의 신축성·감촉·소재·강도 등이 미흡하였으며 수요의 한계성으로 생산이 전문화·계열화되어 있지 않아 계획생산이 어렵고 소량·다품목의 주문생산 형태가 불가피하여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홍보활동도 업체의 영세성으로 미흡하고, 자력진출 능력이 취약하며, 수출시장 또한 미국·일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 추진방침

낙후된 한국의 운동용구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운동용구의 품질을 국제수준화하기 위하여 1982년 5월 세부추진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제품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고급화

우선 단시일내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경기용구 제품의 KS규격을 제정, 검사품목을 확대하여 국제공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술제휴 등을 통한 외국선진기술의 도입을 확대하며, 공업진흥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품질향상 기술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품질을 고급화시킨다.

중소운동용구 생산업체 육성 지원

대부분이 영세한 운동용구업체임을 감안하여 건실한 중소운동용구 생산업체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육성 지원하며, 운동용구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고유상표 개발, 국제경쟁력 강화

서울올림픽대회에 소요되는 경기용구의 국산품 사용을 확대하고, 한국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국내전시회 개최,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출산업화 대상품목으로 육성한다.

1.2. 추진실적

□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개발

품질향상 기술지도

공업진흥청은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기술자를 활용하여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자재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총망라하여 현장기술 및 품질관리법 지도 등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였다. 지도내용을 보면 양질의 원·부자재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정합리화에 따른 애로기술 타개와 표준작업을 설정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후시설의 개체 및 검사시설 보완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품질향상 기술지도 실적

연 도	품 목	업 체
1983	10	12
1984	10	7
1985	7	10
1986	기술지도 품목의 사후관리	
계	27	29

기술개발 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운동용구 생산업체의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체 보유한 기술자와 외부기술자를 활용, 총 45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지도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한체육회 선임지도위원의 기술지도

대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 중에서 지도위원을 종목별로 선임하여 국산체육용구의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였다.

□ 경기용구의 KS규격화

낙후된 운동용구의 품질을 단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36개개 품목에 대해 KS규격을 제정, 제품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품질검사 품목을 14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원 육성

체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6개 품목을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로 지정하였고, 동 품목 생산업체 중에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 낙후된 운동용구산업을 국제수준화하기 위하여 품질향상 기술지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원 육성 등을 하였다.

KS규격 제정현황

연 도	품목수	내 용
1982 이전	16	테니스공·탁구대·테니스라켓·평행봉·철봉·여자평행봉·평균대·안마·링·도마·스키·보강층이 있는 운동용 고무공·탄환·산탄총·골프공·배드민턴라켓
1983	3	뜀틀·매트 및 보드·곤봉
1984	2	농구대·농구골네트
1985	1	양궁
1986	11	탁구공·야구글러브·스케이트보드·롤러스케이트·스타팅블럭·바통·허들·구름판·봉고도용 및 주고도용 스폰지매트·물안경
1987	3	권투글러브·자전거용 안전모·스키
계	36	

검사품목 지정현황

연 도	품목수	내 용
1983	9	축구공·농구공·배구공·핸드볼공·테니스공·골프공·야구공·탁구공·배드민턴 셔틀콕
1984	1	야구글러브
1985	1	테니스라켓
1986	2	배드민턴라켓·낚시장비
1987	1	스케이트보드
계	14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

구 분	체 육 용 품	교 육 용 품
공동용구 (17)	축구공·핸드볼공·배구공·농구공·농구대·야구공·테니스공·탁구공·탁구대·복싱글러브·사격표적지(11)	스타팅블럭·허들·바벨·철봉·뜀틀·체조매트(6)
개인장비 (9)	골프공·야구글러브·테니스라켓·배드민턴라켓·탁구라버·양궁활·체조복·수영복·경기용 사이클(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현황

품목(25)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7)
축 구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가미산업(주), 범아체육공사, 동림상사
배 구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주)삼양스포츠
핸 드 볼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야 구 공	동아스포츠(주)
골 프 공	동성화학공업(주), 서울낫소(주)
농 구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주)삼양스포츠
농 구 대	동화과학(주), 풍국레포츠
테 니 스 공	(주)낫소, (주)한일스포츠
테 니 스 라 켓	한일라켓공업(주), 에스콰이아라켓공업, (주)낫소
탁 구 공	(주)평화산업
탁 구 라 버	(주)낫소
탁 구 대	원일상사
복 싱 글 러 브	가미산업(주)
경기용 사이클	삼천리자전거(주)
사 격 표 적 지	태릉푸른동산
스 타 팅 블 럭	동화과학(주), 풍국레포츠, (주)수풍정밀
허 들	동화과학(주), 풍국레포츠, 아세아기업사, (주)수풍정밀
수 영 복	조은상사
체 조 복	조은상사
체 조 매 트	현대체육(주), 용운체육공사, 아세아기업사
뜀 틀	아세아기업사, 용운체육공사
철 봉	동화과학(주), 풍국레포츠
역 도 바 벨	동화과학(주), 풍국레포츠, 한국철강(주)
양 궁 활	삼익악기제조(주), 화곡산업(주), 연안정밀(주)
배 드 민 턴 라 켓	연안정밀(주)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 선정

선정과정은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로 공동용구 17개 품목과 개인장비 9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을 체육용구 등 심의위원회 심의(1984. 12. 5)를 거쳐 결정하였다.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의 선정기준은 ① 국민체육진흥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국내개발의 경제성이 있고 90% 이상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과 ② 수요기반의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유브랜드 창출과 수출산업화가 필요한 품목으로, 현재 국산화는 되어 있으나 품질고급화가 필요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육성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생산장려 방법으로는 공업진흥청 등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에 따르고, 경기용품은 1988년까지 국제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교육용품은 1988년까지 체육교육과 국내경기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지원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 26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중 상공부가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987년 12월까지 체육용구 등 25개 품목에 27개 업체를 지정하고, 동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자금 등 자금지원과 공업진흥청의 중단기 기술지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소득표준을 적용시 20%를 경감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하여 1986년 415억원, 1987년 396억원, 1988년 510억원 등 모두 1321억원을 금융지원하였다.

1

제9장 상품개발

운동용구 협동화단지 조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도심지에 산재해 있던 중소운동용구 생산업체들을 일정 공업단지에 수용,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착수, 경기도 파주군에 6억 53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1만 5726㎡대지 위에 4,179㎡ 규모의 건물을 1986년 7월에 준공하였고, 1987년 6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내수진작 및 수출산업화 지원

① 국내전시회 개최 : 국산체육용품의 품질향상과 국내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우수 국산체육용품의 국내전시회를 매년 여러 차례 개최하여 진흥에 힘썼다. 1983년 5월 전주시에서 열린 국산운동용구 전시회와 동년 6월 한국무역협회종합전시관(KOEX)에서 열린 '83국제스포츠 및 레저용품 전시회를 가졌다. KISPO 전시회는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려 국산체육용기구업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② 해외박람회 참가 : 국산체육용구의 품질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해외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한국 상품의 홍보와 고유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에 주력하였다. 1983년 쾰른·뉴욕운동용구박람회에 국내에서 9개 업체가 각각 참가한 것을 비롯, 1985년부터는 뮌헨·시카고운동용구 박람회에 매년 참가하여 서울올림픽 대회 때까지 14회에 걸쳐 국산 운동용품의 국제적인 선전과 진출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 국제공인 획득 및 서울올림픽대회 공식공급용구 선정

공업진흥청 등의 중장기 기술지도로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추진한 결과 국산운동용품의 품질이 국제수준에 도달하였다. 축구공이 등 15개 품목이 19개 업체에서 국제공인을 획득함으로써 서울올림픽대회시 소요된 896개 품목 중 72%에 해당하는 647개 품목이 국산운동용구로 사용되었다.

국산체육용품 전시회 개최실적

연도	전시회명	전시장소 및 기간	참가업체수
1983	국산운동용구 전시회	전주(5.21-5.25)	18
	'83 국제스포츠 및 레저용품 전시회	KOEX(6.22-6.27)	42
1984	국산운동용구 전시회	제주(5.24-5.29)	9
	'84 국제스포츠 및 레저용품 전시회	KOEX(3.27-4.1)	28
1985	'85 KISPO 전시회	기계공업진흥회(4.9-4.14)	41
	'85 국제스포츠 및 레저용품 전시회	KOEX(3.14-3.19)	43
1986	'86 KISPO 전시회	KOEX(6.21-6.26)	85
	'86 국제스포츠 및 레저용품 전시회	KOEX(4. 8-4.13)	52
	'86 우수체육용구 전시회	올림픽종합운동장 지하철역 구내 (9.17-10.6)	19
1987	'87 국제스포츠 및 레저용품 전시회	기계공업진흥회(4.14-4.19)	40
	'87 KISPO 전시회	KOEX(6. 9-6.14)	50
1988	'88 스포츠용품 대축제	여의도안보전시장(4.22-5.5)	50
	'88 서울올림픽관련 상품전	중소기업중앙회(4.29-5.8)	40
	제7회 국제스포츠용구 및 레저용품 전시회(SPOREX KOR '88)	KOEX(5.14-5.19)	46
	'88 KISPO 전시회	KOEX(9.15-10.2)	72

국제공인 획득현황

종 목	품 목	국제공인 획득업체
축 구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동림상사, 가미산업(주), 범아체육공사, (주)삼양스포츠
배 구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주)삼양스포츠
농 구	공	(주)낫소, 신신상사(주), (주)삼양스포츠
핸 드 볼	공	신신상사(주)
탁 구	공	(주)평화산업
	라버	(주)평화산업, (주)낫소
	대	원일상사
테 니 스	공	(주)낫소, 한일라켓공업(주), (주)삼화, 아스콘(주)
골 프	공	동성화학공업(주), 서울낫소(주)
사 격	표적지	태룡푸른동산
복 싱	글러브	가미산업(주)
유 도	매트	선양실업(주)
펜 싱	전기심판기	전일공업사
연 식 정 구	공	대한스포츠
요 트	경기정 (핀 급)	현대정공(주)
13개 종목	15개 품목	19개 업체

서울올림픽대회 국산경기용기구 사용실적(종목별)

종 목	품 목	품목수	주요공급업체
사이클	운반용 케리어 등	9	풍국레포츠
조정/카누	목마 등	13	현대체육(주)
체조	안전매트 등	12	현대체육(주)
축구·배구·핸드볼	펜스·골대 등	29	풍국레포츠,(주)수풍정밀
육상	감찰깃발 등	87	동화과학(주)
양궁·복싱·펜싱	표적받침대·링·칼 등	88	광산기업(주), 가미산업(주) 등
테니스·하키	볼보관함·골대 등	35	원일상사, 낙원스포츠
수영	로프·지주 등	15	(주)수풍정밀
역도·레슬링	스코어보드·추첨판 등	34	동화과학(주), 한국철강(주)
유도	추첨기 등	18	선양실업(주)
승마	추첨기 등	14	현대체육(주)
기타		293	현대체육(주), 한독실업
계		647	

2. 전통공예품 개발

2.1. 사업개요

□ 개발의 필요성

서울아시아대회 ·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로 외국관광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통공예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예품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특수상품으로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국가홍보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서 고용증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양대회에 대비, 중점개발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 공예산업의 특징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공예산업은 대체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토산품 제조업으로 생성 발전해 왔으며, 기업형태를 갖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기보다는 기능보유자 또는 그 후계자들에 의한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공예품의 수출상품화 · 관광기념품화에 따라 지방적 특색은 점점 사라지고 기술인력 확보, 원자재 조달, 제품 판매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이 용이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문생산체제를 갖춘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예산업은 수공작업에 의한 소자본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규모의 다른 제조업에 비해 자산규모가 미약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또한 생산업체가 영세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해 동종 업체간의 과다경쟁이 유발되고 있으며, 생산설비가 노후화되고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데다가 유통구조 또한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데다가 유통구조 또한 전근대적이어서 판로개척이 어렵고, 종사원의 이직률이 높아 생산이 불안정적이다.

공예품은 종류는 같아도 디자인 및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지만, 규격화가 곤란하고 자체의 장식품 또는 기호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그 수요가 소득수준 변동에 민감한 실정이었다. 그런 반면에 공예품 생산에는 특별한 시설이나 고가의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율이

중소기업규모의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추진방침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추진된 공예산업의 지원 육성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의 기호에 맞고 휴대가 간편하며, 가격이 저렴한 전통적인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육성대상 50개 품목을 선정, 집중개발하여 올림픽상품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 1회 전국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업체에 대하여는 올림픽기념품 생산업체 및 공예품 전문생산업체로 지정,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육성하였다.

② 공예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사업을 강화하고, 디자인 포장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수디자인 개발 등 품질을 고급화 하였다. 또한 해외 우수공예품과 역대 올림픽상품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국내 공예품 생산업체에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해외시장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다.

③ 관광권과 연계한 공예품산지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공예품은 그 생산형태가 지방 특유의 원자재와 전승기예에 의하여 가내수공업으로 계승되어 왔으므로, 지방 고유의 전통공예의 기능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예품 산지와 주요관광권을 연계하여 육성하였다.

④ 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확대에 주력하였다. 우수공예품 및 새로 개발된 상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예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주 · 경주 등의 주요관광지와 연계, 그 지역의 공예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특산품 판매장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또한 각 호텔 · 백화점 등에 올림픽기념품 전시판매장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였다.

2.2. 추진실적

□ 공예품 개발 및 육성품목 선정

공예품의 올림픽상품화 및 우수 올림픽기념품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고 휴대가 간편하며, 가격이 저렴한 나전칠기·화병·금속촛대 등 50개 품목을 1985년 4월 공예산업육성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우선 육성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동 품목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이보다 앞서 새로운 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제공을 위하여 1982년 1월 한국디자인 포장센터내에 디자인 개발 전담반 및 디자인 상담실이 설치 운영되어 왔다.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과 올림픽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1984년부터 198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은 상공부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공동주관하에 올림픽기념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를 대비한 지원체제로 전환하였다. 동 전시회 출품상품에 대하여는 올림픽 휘장 및 마스코트를 사용하여 출품하도록 함으로써 올림픽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입상업체에 대하여는 올림픽기념품 생산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 공예품 전문생산업체 지정

공예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출상품화 및 관광기념품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84년 이전에 179개의 공예품 전문생산업체를 지정하였고, 1985년 35개, 1986년 46개, 1987년 29개, 1988년 43개 등 모두 332개 업체를 지정, 자금지원과 기술 및 디자인 지도 등을 통하여 육성 지원하였다. 1990년까지 총 400개로 확대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 디자인 개발 품질향상 지원 강화

공예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공업진흥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공예품 전문생산업체 및 올림픽기념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디자인포장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예품경진대회에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품질향상을 유도하였다.

2. 외국인의 기호에 맞고 휴대가 간편한 공예품 제작을 위하여 공예품 전문생산업체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2

제9장 상품개발

□ 관광권과 연계한 공예품산지 육성

공예품의 생산형태는 그 지방 특유의 원자재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독특한 제조기술에 의하여 가내수공업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 고유의 전통기능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예품산지와 주요관광권을 연계, 지방별로 협동소조합을 구성하여 동 조합을 중심으로 협동화사업을 추진, 공장의 집단화 및 시설의 공동화로 품질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 기념품사업 지원

사업개요 :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소요기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국내 기념품업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생산업체로 지정, 배지 · 열쇠고리 등 기념품에 각 대회의 휘장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게 하고, 이를 판매상품화권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 : 서울아시아대회 휘장과 서울올림픽대회 휘장 및 마스코트를 상품 자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학계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기념품선정위원회에서 배지 등 24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선정품목은 배지 · 핀 · 반지 · 브로치 · 목걸이 · 열쇠고리 · 티스푼 · 손톱깎이 · 오프너 · 병(통)류 · 기 및 펜던트 · 버클 · 벨트 · 컵 · 접시 · 패용버튼 · 자수품 · 도자기 · 재떨이 · 펜꽂이 · 탁상세트 · 민속공예품 · 입체형 올림픽 마스코트 등이다.

기념품 생산업체 지정 :

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기념품 전시회에서 입상한 업체로 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120개 업체를 올림픽기념품 제작 우수생산업체로 지정하였다. 1985년 7월 제 1 차로 (주)에덴상공사 등 14개 업체를 지정한 후 동년 9월 제 2 차로 보예원 등 8개 업체, 동년 11월 제 3 차로 88개발 등 27개 업체, 1986년 1월 제 4 차로 (주)삼화유리 등 36개 업체, 동년 9월 제 5 차로 대진공예사 등 56개 업체를 지정하였는데, 품목별로 중복되는 업체도 있다.

기념품판매 상품화권자 선정 :

조직위원회에서는 휘장사업의 일환으로 (주)대왕 등 10개 업체를 기념품판매 상품화권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주)삼동실업 · 남교물산(주) · 범양산업(주) · (주)동명종합산업 · (주)정원종합산업 · 대신종합상사 · (주)에덴상공사 · 성방산업(주) · 오림개발(주) · (주)대왕

공예품 생산업체 자금지원 실적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1984 이전	1985	1986	1987	1988	계
중소기업 진흥기금	업체수	120	36	77	52	53	338
	금 액	2,435	1,100	2,000	1,500	1,500	8,535
중소기업 특별자금	업체수	149	75	107	26	54	411
	금 액	3,875	1,684	6,231	584	1,369	13, 743
계	업체수	269	111	184	78	107	749
	금 액	6,310	2,784	8,231	2,084	2,869	22,278

공예단지 조성현황

사업장명	생산품목	참 가 업체수	규 모 (㎡) 대 지	규 모 (㎡) 건 물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지역)
한국공예품 종합직매장	공예품	40		532	400	완공(서울)
경주민속 공예촌	민속공예품 (신라토기·도자기·불상 등)	16	27,689	9,136	3,353	완공(경주)
강원목공예	목공예품	5	2,178	923	167	완공(인제)
제주공예품	민속공예품 (석·보석·목·섬유·초경·공예품 등)	7	14,674	1,780	678	완공(제주)
고려금속공예	금속공예품 (동물상·인물상·액자 등)	6	12,989	8,195	2,156	추진중(인천)
보령석공예	석공예품 (묘비·상석 등)	6	8,188	1,914	545	완공(보령)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실적

연 도	구 분	출품수 총 수	출품수 점 수	입상현황 (종) 입 상	장려상	특 선	입 선	계
1971－1985	1회－15회	17,126	107,708	233	326	843	8,116	9,518
1986	16회	1,184	22,415	19	33	48	424	524
1987	17회	642	16,439	15	57	78	412	562
1988	18회	632	17,381	16	56	78	412	562
	계	19,584	163,943	283	472	1,047	9,364	11,166

디자인 개발 및 기술지도 실적

구 분	1984 이전	1985	1986	1987	1988	계
디자인 개발 업체수	109	21	30	15	32	207
기술지도 업체수	98	11	32	16	20	177

3

3.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소요기금을 조달하며 국내 기념품업계를 국제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배지 · 핀 등 24개 품목을 서울올림픽 기념품으로 지정하였다.

4~5. 경기장 주변 및 행사장 · 숙소 등에 설치된 기념품 판매소.

6. 대회 기념물품의 하나인 패용버튼.

등이다

기념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올림픽기념품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기념품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품질관리, 디자인 개발, 품질검사 등 종합적인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상표의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과 조직위에서는 불법기념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념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해외 올림픽상품을 수집·전시·대여함으로써 해외 올림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23개 품목 980여종을 새로 개발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338개 업체에 85억원을 지원하고, 177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한국디지인포장센터에서는 207개 업체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 및 포장기술을 지도해 주었고,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해외 올림픽상품 5,349점의 견본을 수집, 67회에 걸쳐 전시회를 열었으며, 개발상품에 대하여는 2217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알선해 주었다.

기념품의 판촉 지원 : 올림픽기념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사업을 실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국내외 선물용품으로 올림픽기념품을 구입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내 중심가·지하철·공항·경기장 주변에 140여개소의 전시판매장을 확대 실시하였다.

품질향상 지원 : 공업진흥청은 공예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 생산업체 및 올림픽기념품 생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대책을 추진하였다. 현장에서 애로가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지도 전문기관과 관계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업체 스스로도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자체 품질검사의 강화와 철저한 마무리로 품질을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공예품의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포장센터의 기능을 활용, 디자인 개발 및 개선을 지도하고 지도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알선과 공예품경진대회 입선에 유리한 평가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였다.

4

5

6

제9장 상품개발

3. 양채류 개발 보급

3.1. 사업개요

국민경제의 향상과 외국인 내방객의 증가 및 식생활 소비패턴의 다양화 등으로 양채류의 수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올림픽대회에 대규모 선수단 및 관광객이 참여함에 따라 양채류의 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 대회기간중에 필요한 양채류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토록 하며, 또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정착시키고 올림픽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3.2. 추진실적

□ 생산기반 조성

품종개발 육성

국내 양채류 재배는 그 재배 역사가 짧고 또 국내에 알맞는 품종개발이 미약한 상태이며, 특히 올림픽 개최시기가 9 10월이므로 양채류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키 위하여 무더운 여름철에 재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름 재배에 강한 품종 선발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1983년까지 2년간 농촌진흥청(원예시험장 및 고냉지시험장)에서 품종선발 시험을 한 결과 국내재배에 적합한 결구상추 등 8개 품종 23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생산시설 지원

국내 양채류의 재배여건 조성을 위한 전국 주요양채류 재배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 기생충감염 등을 조사한 후 위생재배 적지로 판단된 11개 지역을 양채류 재배 주산단지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를 양채류 생산단지로 집중육성하고자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양채류 주산단지내 재배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시설 31ha, 해가림시설(차광막) 10ha, 수경재배시설 1.5ha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올림픽 수요에 대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 올림픽 공급용 양채류 생산대책 추진

서울올림픽대회 양채류 생산계획 수립

올림픽 수요에 대비한 품종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 생산기반을 조성한 결과 서울아시아대회기간내에 필요한 양채류 전량을 국내에서 차질없이 생산 공급한 바 있으며, 서울올림픽대회 개최시에도 필요한 양채류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키로 하고, 올림픽대회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양채류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선수촌 급식용 양채류 공급계획

서울올림픽 선수촌 급식 수요물량에 대한 공급원활을 기하고자 여름 재배가 가능한 강원도 고냉지대에서 전량 생산 공급키로 하고, 공급방법 및 수요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올림픽조직위에서 결정하여 재배농가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대회기간중에 필요한 수요물량은 동 조직위가 지정한 공급대행회사 (주)한양유통을 통하여 강원도 지역내의 양채류 재배 경험이 많은 농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계약조건(공급가격 등)도 농가에 유리하도록 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배제하였다. 또 농촌진흥청장 및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재배지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좋은 양채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하였다.

양채류 공급계약재배 추진

양채류는 주로 생식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깨끗한 규격품을 생산 공급키 위해서는 재배기간중 농약사용 금지, 오염원 제거 등 청정재배가 요구되므로 양채류 재배기(7월중)에 계약재배농가 포장에 대한 중금속(Cd · Cu · Pb · As 등) 및 기생충 오염상태를 사전에 정밀조사하였다. 그 결과 위생재배 적지로 판명되었다.

또 7월중 계속된 강우로 결구상추 · 샐러리 등의 생육상황이 다소 부진함에 따라 비가림시설(9,197㎡, 2억 450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한편,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간에 재배되는 관계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공급차질을 가져올 것에 대비, 강원도 고냉지대를 중심으로 예비공급지역을 확보한 후 계약재배 농가에 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양채류의 생육상황, 위생재배 지도 및 납품상황 등 종합적인 수급판단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출장을 실시하는 등 안정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선수촌 공급상황

선수촌 공급계약 양채류는 재배농가의 위생적인 관리와 행정·지도기관의 재배기술 지도로 생육상태가 매우 좋았으며, 8월 하순부터 대회 참가선수들의 선수촌 입촌이 시작되면서부터 공급일정별로 차질없이 납품하였다. 양채류의 품질 또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채류 개발 보급의 성과

양채류의 국내 적품종 개발 보급 및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서울아시아 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기간에 선수촌 급식에 필요한 양채류의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재배 역사가 짧은 양채류를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기술 보급 및 소비확대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988년도 양채류 생산계획 및 수요량

품 목	수 요 량			생산계획(B)	대비(B/A)
	평상시	올림픽 추가	소계(A)		
결구상추 외 10개	9,960톤	910톤	10,870톤	11,060톤	102%

계약품목 및 물량

계약재배지역	품 목	물 량	납품일자	비 고
강원도 평창군·철원군	결구상추 외 10개 품목	50,340kg	1988. 8. 25－10. 5	공급대행사 : (주)한양유통

7. 대회용 양채류를 전량 국내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재배에 적합한 결구상추 등 8개 품종 23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8~9. 양채류는 재배농가의 위생적인 관리와 행정지도기관의 재배기술 지도로 생육상태가 매우 좋아 선수촌 등에 차질없이 공급되었다.

8

9